

# 광주 3천여명 '촛불집회'

## 美 쇠고기 반대... 일부 교사, 참여 학생 파악 '논란'

광주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광주·전남지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특별대책위(대책위)'는 지난 10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에서 시민·학생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와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동안 수십, 수백명 단위의 소규모 집회는 있었으나 수천명 이상이 모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날 촛불집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현 정권을 비판하는 연극, 노래 공연과 참가자들의 자유 발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대책위는 촛불집회 장소로 금남로 삼

복서점 앞 도로만을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참가자들이 늘면서 금남로 3개 차선을 이용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교복 차림의 중·고등학생들이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많았다.

이날 집회장에는 최근 학생들에게 무차별 살포되고 있는 '5월 17일 등교 거부' 등 광우병을 둘러싼 괴담과 관련, 광주 시내 일부 중·고교 교사들이 참석 학생들을 파악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집회에 참가한 광주시 K고 학생들은 "학교가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명단을 파악하는 등 학생들의 참여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

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가 학생들의 정당한 집회 참석까지 막으려는 모습에서 실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K고 관계자는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명단을 파악한 적도 없으며, 별도의 지시사항도 내려본 적 없다"고 학생 감시에 대한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광주·전남 진보연대는 이날 오후 4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민주의 종각 앞에서 '오월정신계승 문화제'를 열어 5·18 민중항쟁 영상물과 함께 '광우병 쇠고기' 동영상 상영하기도 했다. 한편 촛불집회는 오는 16, 17일 오후 7시 금남로 일대에서 또 진행될 예정이다. /광필상기자 kps@kwangju.co.kr



촛불집회의 주역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시민 3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난 10일 밤 광주시 동구 금남로 삼복서점 앞 도로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여학생이 '광우병 소 수입 중단'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촉촉한 석가탄신일** 5월 12일 (음 4월 8일) 전국날씨

차차 흐려져 오후 늦게 비가 오겠다.

광주	차차 흐려져 비	10~21℃
포항	차차 흐려져 비	11~20℃
여수	차차 흐려져 비	12~17℃
완주	차차 흐려져 비	10~20℃
구례	차차 흐려져 비	7~21℃
해운대	차차 흐려져 비	7~21℃
남해	차차 흐려져 비	7~21℃
홍성	차차 흐려져 비	11~18℃
영광	차차 흐려져 비	7~21℃
진안	차차 흐려져 비	8~20℃
진천	차차 흐려져 비	9~21℃
남원	차차 흐려져 비	6~20℃
홍성	차차 흐려져 비	11~17℃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남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5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1.5m  
만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7:46 썰물 < 00:05  
19:57 13:20  
여수 밀물 < 02:34 썰물 < 09:09  
15:18 21:14

▲해돋이 05:31 ▲해질 19:27 ▲달돋이 12:05 ▲달질 01:1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3(화)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날씨						
최저/최고	11/16	9/22	10/24	11/24	12/25	13/26

## “정부 변명 되풀이, 국민 알아본다” “곧 선거권 갖는 우리 무시하지 말라”

### ■ '촛불집회' 말... 말... 말...

지난 10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는 현 정권에 대한 시민 성토의 장이었다. 이날 밤 10시까지 진행된 촛불집회에는 자유 발언을 하는 학생·시민들로 줄을 이었으며 시종일관 축제분위기가 속에서 진행됐다. 자유발언을 통해 쏟아진 학생·시민들의 말을 정리한다.

자신을 고3이라고 소개한 한 남학생은 자유발언을 통해 “공부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현 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며 “정치인들이야 비싼 한우를 먹었지만 우리들은 30개월 이상 된 쌀 소를 먹어야 한다. 내년이면 선거권을 갖는 우리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했다.

광주 K중학생 윤모(14)군은 “방송이나 책을 통해 본 광우병의 위험성이 상상 외로 심각해 집회에 참석했다”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는데 정부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국민을 알잡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김모(여·20)씨는 “정부는 전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국

민적 분노가 타킬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북, 강원 등 타지역에서 온 학생·시민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군산에서 왔다는 여고생은 “정부가 촛불집회에 대해 경경 대응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촛불 집회는 참가자 70%가량이 중·고등학생들이었지만 가족 단위로 아이들을 데리고 참석한 시민들도 많았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광우병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 참가했다는 김경주(40·광주시 북구 문흥동)씨는 “미국의 검역 시스템이나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변명을 도무지 못 믿겠다”며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국 쇠고기 수입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광필상기자 kps@

## 영광 한우협회 부회장 자살

영광의 한 축산업자가 자신의 축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1일 영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7시께 영광군 영광읍 덕호리에 사는 영광 한우협회 부회장 서모(48)씨가 자신의 축사에서 축사 기둥에 목을 매 숨겨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영광 한우협회 부회장인 서씨는 지난 10여 년 동안 소를 키웠으며 현재는 70여마리의 소를 사용하고 있다. 또 3년 전부터 심한 우울증세를 보여 병원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12월에도 한 차례 음독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할 때 학부모 참여 원산지 등 심의

### 교과부, 교육청에 요청

미국산 쇠고기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앞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산지 등을 심의하고 그 기록을 남기게 된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7일 소집한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매할 때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원산지 등을 심의하고 그 기록을 남기도록

당부했다.

지난해 옛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도 식재료 구매시 반드시 원산지를 명시하고 검수과정에 학부모 또는 교직원 참여해 원산지와 품질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 의심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원산지 및 품질 검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했고 식재료를 부정합품한 것으로 드러나면 고발 조치와 계약해지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 오늘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날'

### 광주·전남 봉축행사 다양

불교 최대 명절인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12일 광주·전남 지역 사찰에서는 봉축 법요식을 비롯해 다양한 봉축행사가 열린다.

광주시 서구 처평동 무각사(주지 청학)는 오전 11시 명교(鳴鼓)·명종(鳴鐘) 의식 등 불교 전통의례에 따라 봉축법요식을 개최한다. 이날 법요식에는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 총대리 주교, 김현 원불교 광주·전남교구장, 장관철 광주무진교회 담임 목사도 참석해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법요식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최정무 대주교를 대신해 이경주 신부가 '우리 민족과 고난을 함께 하며 화합과 공존을 이뤄온 불교가 고통에 짓눌린 이들에게 힘이 되길

기원한다'는 내용의 봉축 메시지를 낭독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무각사에서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가톨릭합창단,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음 합창단, 무각사 합창단, 광주 무진교회 성가대가 참여한 가운데 종교를 초월한 합창 행사가 열린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원각사(주지 도제)도 오전 10시 법요식에 이어 오후 1시에는 원각사 청년회 '빛올림' 풍물패의 지신밧기 공연, 달마 그림 시연회 등의 봉축행사를 갖는다.

이밖에 해남 미항사(주지 금강)는 미항사 일대에서 경로잔치, 땅굴 해남 어르신 노래자랑 등이 열리는 '땅굴 문화제'를, 장성 백양사(주지 성오)는 외국인교 백양사 신도들이 함께 하는 '한마을 노래자랑'을 연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식물인간 자연사를”

### 가족들 가져분 신청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70대 환자의 가족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하고 자연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국내 처음으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주장하는 가

처분 신청을 내 법원의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

10일 법률사무소 해울에 따르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여·75)씨와 그 가족들은 병원에서 김씨에 대해 인공호흡기 사용이나 약물투여 및 영양·수분 공급 등 연명 치료나 응급심폐소생술 시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 서부지법에 가져분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미도** 正統日食

**확장사업**

일식이 뜨거워지면 13대년 후 맞이하게 될 새로운 문화의 흐름을 선도하는 최첨단 경영 전략을 실현합니다.

명품의 맛과 품질을 추구하는 미도, 고객 만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정식/수입특선**

- 특수급이차 4륜자동차용정식 — 11,666
- 배달정식 — 13,000
- 미도정식 — 21,000

**추천 50% 기념 (주최는 미도정식 후원)**

남부고속도로 13번지점 234-0001

**신협 가족사랑 캠페인** 광명평가 전국 1위 기념

가족사랑에서 사랑을 나누어주세요

30% 할인 6.56% 연이자율

7.65% 연이자율

**부처님 오신날**

관음신용협동조합

충청로 4가 광주지점 맞은편 전화 224-1883, 1921